

제목: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말씀: 갈라디아서 5:13~14절

| | |
|-----------|--|
| 지난주일 헌금 | |
| | |
| 합계 | |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II Cor.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2시
2 PM

인도: 최윤서 장로
President: Elder Choi

- * 예배로의 부름 인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5:13~14절 인도 자
Scripture Reading Galatians 5: 13-14 신약 308 페이지 President
- 말 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신종식 목사
Message The happiness of Serving God Rev. Shin
- 찬 양 412(469) 네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다 같 이
Praise Far away in th depths of my spirit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 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218(369)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Love you God with your heart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Shin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단풍)

가을이 빨리 찾아왔다. 그렇게 빨리 오면 더 오래 함께 할 줄 알았더니 지난해에 비해 가을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래 붙어 있을 줄 알았던 이파리들이 빨리도 변하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왜 그런지 올해는 내 마음에 빨리 지고 있는 단풍이 아쉽기만 하다. 그 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달아간다는 것일까? 너무나 아쉬워 일주일간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카메라를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다. 마지막 단풍을 놓치기 싫어서였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카메라 렌즈로 보는 단풍은 더욱 아름다웠고 그래서 그런지 더 아쉽기만 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도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또한 하나님 섭리의 시간대는 어찌 그렇게도 틀림이 없을까? 신기하기만 하다. 놀랍기만 하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색이 변한 이파리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서는 아름다움이지만 나무에게는 아픔이라는 것이다. 나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의 상상의 나라에서 만큼은 그렇다. 나무 이파리가 살만큼 살고 붙어 있을 만큼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 바로 전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이파리의 색을 변하게 하고 떨어져 겨울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무의 죽음과 같은 아픔이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로 부르실 때에 단풍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세상은 푸르지 않으면 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태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산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리라.

하나님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라고 하시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신다. 그 아름다운 삶은 단풍과 같은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모두 드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볼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을 말한다.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도피성과 같고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에 끌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다.

가을 아름다움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헌신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갈 때에 가을의 단풍과 같은 아름다움에 세상이 흠뻑 취하게 될 줄 믿는다. 적어도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물이 바 را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말씀일 것이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 단풍을 보는 것 같은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는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2. 감사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신종식 목사님 고맙습니다.

3.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이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도록
- 2)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임 수 있도록
- 5)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4. 예배 장소 관리

교회에 물품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그 자리에 이전과 같이 돌려놓아야 합니다. 깨끗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교회 모임

11월2째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생명의 삶

이번 주 목상 성경 구절

- 월요일: 골로새서 2장 20-23절
화요일: 골로새서 3장 1-4절
수요일: 골로새서 3장 5-11절
목요일: 골로새서 3장 12-17절
금요일: 골로새서 3장 18-25절
토요일: 골로새서 4장 1-18절

7. 헌금 안내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이 자원하며 헌금을 드리시고 Check에 제목을 [New Church of Oregon](http://www.newchurchoforegon.org)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